



Hospital Ship

Chungnam 501

섬마을 지키는 바다 위 **종합병원**

병원선은 병·의원이나 보건소가 없는 도서 지역을 순회하며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내과·치과·한방과 공중보건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이 근무하며 약국과 방사선실을 갖추고 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지난 12월 10일 충남도청 소속 병원선 충남501호에 올랐다. 사진 김주형 기자·글 장성배 기자



“충남501호는 섬 앞바다에 닻을 내리고 보트를 이용해 주민들을 실어오거나 의료진이 섬에 들어가 진료한다.”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서 출발한 병원선 충남501호는 대천항 북서쪽에 자리한 원산도 진말로 향했다. 원산도는 충남501호가 순회하는 6개 시·군 28개 유인도 가운데 가장 크다. 백운기(60) 선장의 지시에 따라 항해한 배는 40분 만에 원산도 초전선착장 앞바다에 도착했다.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수심도 깊지 않다. 특히 충남도 내 섬들은 대형 선박을 위한 접안시설이 없어 160t 규모의 충남501호는 순회하는 모든 섬의 앞바다에 정박했다. 이날도 썰물에 대비해 초전선착장에서 1.5km가량 떨어진 해상에 닻을 내렸다. 병원선에서 선착장까지의 이동에는 12인승 보트가 사용됐다. 내과 전문의 김달용(32) 대위, 한의사 이기현(28) 중위, 정향심(51) 간호사, 최건용(54) 사무장이 각각 진료가방과 노트북을 챙겨 보트에 올랐다. 초전선착장에는 진말 진창경로당에서 보낸 승합차가 대기 중이었다. 승합차는 선착장에서 경로당까지 4km 남짓한 거리를 시속 30km로 조심스럽게 달렸다. 전날 내린 눈이 얼어붙어 해안도로가 빙판으로 변해 있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오면서 미끄러지지 않으셔야 할 텐데...”, “날이 추워서 오늘은 많이 못 나오실 것 같은데요.” 승합차로 이동하는 동안 의료진 사이에 걱정 섞인 대화가 오갔다.



“병원선 없으면 큰일 나요. 섬마을 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도움을 본다고요.

겨울에는 몸이 아파도 춥고 길이 미끄러워서 섬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아예 못해요.”



진창경로당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서자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40여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제히 일어나 의료진을 반겨 맞았다. 한 달 만에 의료진을 만난 노인들의 표정과 목소리는 인기스타 팬들의 그것과 다름없었다. 의사의 손길을 절실하게 기다렸다는 듯 뜨거운 반응이었다. “오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소. 날이 이리 추운데도 찾아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날 아침 총남501호로부터 연락을 받아 마을 안내방송을 통해 병원선 방문을 주민들에게 공지한 박병석(79) 진말 노인회장이 의료진을 방 안쪽 따뜻한 자리로 이끌었다.

진료도 하고 말동무도 되고

총남501호 의료진의 도착과 함께 진창경로당은 진료실로 바뀌었다. 큰 방에선 접수와 내과 진료, 작은 방에선 한방 진료가 이루어졌다. 접수는 최 사무장이 담당했다. 주민이 이름과 나이를 말하면 노트북에 설치된 수진자 관리 시스템에서 검색해 이날 받고자 하는 진료 과목을 확인했다. 병원선이라면 진료 과목이 내과, 치과, 한방으로 나뉘는데 이날은 출장 진료여서 치과가 제외됐다. 최 사무장은 “20년 넘게 빈 분들이라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로”라며 접수를 시작했다. “수진자 관리 시스템을 보면 이름과 생년월일만 등록된 분들이 많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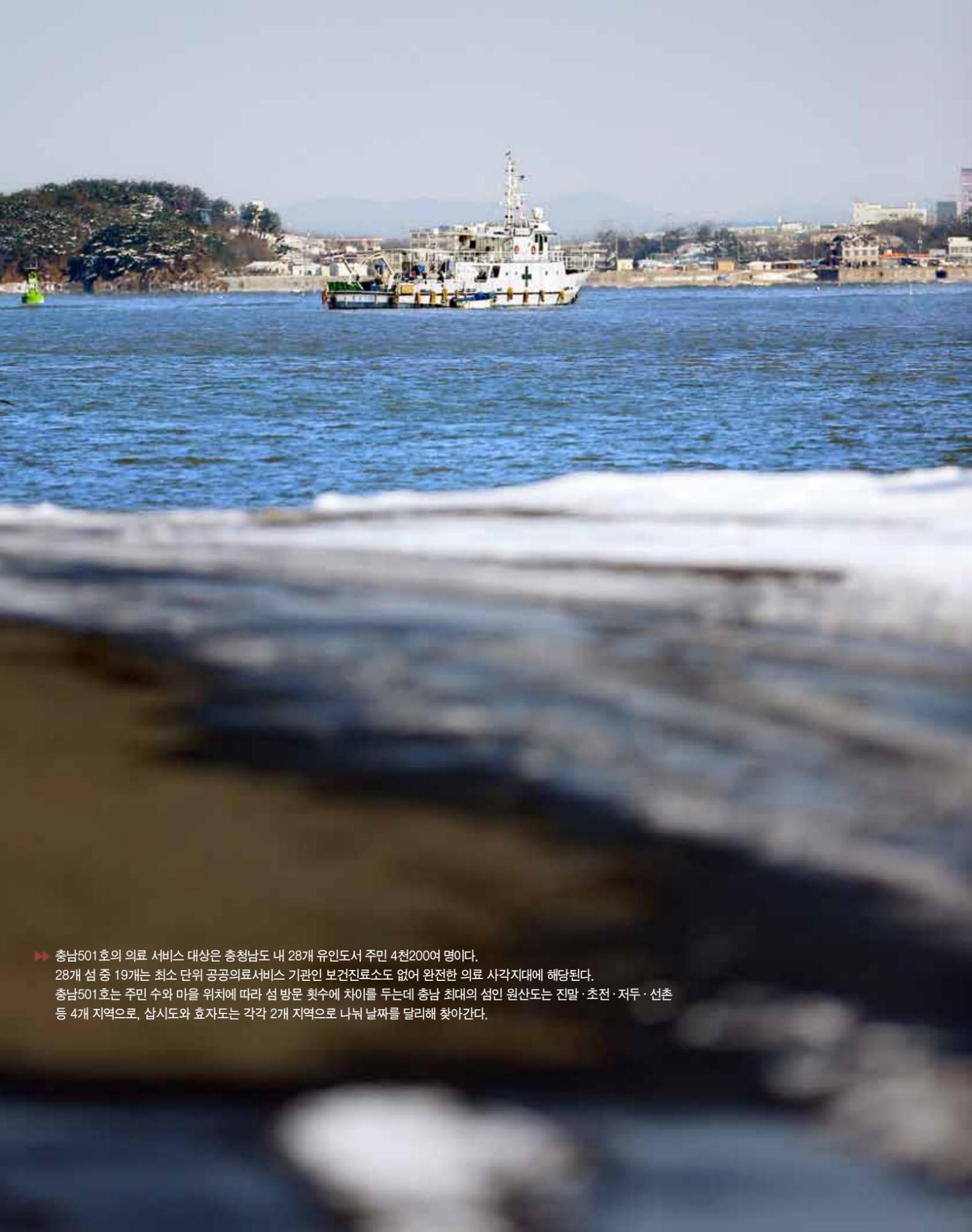
니다. 다들 연세가 많으시고 평소에 사용할 일이 드물어서인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전화번호는 잘 외우지 못하세요.” 접수를 마친 환자는 바로 옆 내과로 이동했다. 밥상 두 개를 나란히 붙여 하나는 접수대로, 또 하나는 내과 진료용 탁자로 사용했다. 내과에서의 혈압 측정엔 병원선 근무 경력 9년의 정 간호사가 담당했다. “섬에 상륙하면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해요.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니 주민들과 친밀감도 높고요. 할머니들 신세 한탄 들어주는 일도 많아요.” 혈압 측정 이후 본격적인 진료가 시작됐다. 지난 4월 총남501호에

승선한 김 대위는 감기 증세가 있어 마스크를 쓰고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살폈다. “유송정(76) 할머니는 기침을 너무 오래 하시네요.” “이 용순(86) 할머니는 지난번 뺏을 때보다 혈압이 너무 떨어지셨네요.” 총남501호 출장 진료에선 ‘3시간 대기, 3분 진료’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의사가 환자의 말을 충분히 들으며 면밀하게 상태를 관찰한 후 기존 진료 기록을 참고해 진단하고 투약 처방을 내렸다. “섬 주민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데 특히 고혈압 환자가 많습니다. 현재 매달 진료를 받는 1천여 명 중에서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485명이나 됩니다.”



▶▶ 지난 12월 10일 충남 원산도 진말 진창경로당에서 충남501호 한방 공중보건의 이기현 중위가 할머니들에게 침을 시술하고 있다. 키가 190cm에 육박하는 이 중위는 좁은 경로당 안을 분주히 오가며 할머니들의 허리와 무릎을 꼼꼼하게 짚어 반응을 살피고 질문을 하며 침을 놓았다.

“할머니! 만날 무릎 아프다고 하셨는데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소화는 잘되세요?” 이 중위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뽏 수 없는 분들이라 아쉬운 점이 많다”며 “병증과 체질에 따라 침과 약재를 병행하는데, 우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진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70, 80대가 대다수인 병원선 환자들은 손자뻘 되는
 나이의 한의사를 ‘우리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며
 아픈 곳에 대해 하소연하듯 털어놓았다.”

진창경로당 작은 방에선 이 중위가 한방 진료를 수행했다. 노인 환자들은 옷을 벗고 침을 맞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남녀를 구분하는데 이날은 할머니들이 먼저 치료를 받았다. 2011년 한의대를 졸업하고 지난 4월 승선한 이 중위는 “섬 주민들은 오랜 노동 탓인지 대개 관절염이나 요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원산도 진말 진료는 오후 4시 무렵 종료됐다. 이날 진료를 받은 주민은 마을 최고령자인 편월분(88) 할머니를 비롯해 총 84명이었다. 의료진은 온 길을 되돌아가 선착장에서 보트를 이용해 충남501호로 귀환했다.

병원선에선 정희정(41) 간호사가 진말 주민들을 위한 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충남501호에는 약사가 없어 내과 전문의 김 대위의 관리·감독 하에 배에 남은 의료진이 약을 조제했다.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약이 대부분이었다. 정 간호사는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고 혼동하지 않도록 A4 복사용지보다 큰 약봉투에 사인펜으로 환자 이름, 질환명, 복용법을 적었다. 오후 5시 무렵 초전선착장에 약이 가득 담긴 상자 3개를 남겨놓고 충남501호는 대전항을 향해 출발했다.

매달 28개 섬 1천여 명 진료

병원선 충남501호는 1978년 운항을 시작했다. 현재 운항하는 160t급 선박은 2001년 4월 취항했다. 길이 38m, 폭 7.5m 규모로 최대 정원은 20명이다. 진료실은 내과, 치과, 한방과로 구성되며 약국, 방사선실, 임상병리실을 운영한다. 현재 전남(2척), 경남, 인천에서 운영하는 병원선들에 비해 의약품과 의료장비 구비율이 높은 편이다.

충남501호 방사선실은 최건용 사무장이 담당한다. 최 사무장은 본래 방사선사 출신으로 한 달 평균 20여 회 주민들의 X선 촬영과 골밀도 검사를 시행한다.



병원선 사람들의 하루는 분주하다. 환자 접수부터 진료, 시술, 검사, 의약품 조제와 포장까지 낮 동안 업무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 충남501호의 의료 서비스 대상은 충청남도 내 28개 유인도서 주민 4천200여 명이다. 28개 섬 중 19개는 최소 단위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인 보건진료소도 없어 완전한 의료 사각지대에 해당된다. 충남501호는 주민 수와 마을 위치에 따라 섬 방문 횟수에 차이를 두는데 충남 최대의 섬인 원산도는 진말·초전·저두·선촌 등 4개 지역으로, 삼시도와 효자도는 각각 2개 지역으로 나눠 날짜를 달리해 찾아가는다.



“병원선에 구비된 의약품은 섬 주민들의 연령대, 생활습관과 연관돼 있다. 고혈압, 당뇨 관련 약이 가장 많다.”

임상병리실은 생화학분석기, 전해질분석기, 뇨분석기, 당화혈 색소측정기 등 각종 검사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용우(44) 임상 병리실장이 1992년 처음 병원선에 왔을 때는 현미경 1대와 혈 당측정기가 전부였다.

“생화학분석기는 지난 10월에 구입한 최신 장비입니다. 1회 채 혈로 빈혈과 간, 신장 기능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15가 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충남501호는 한 달에 3주를 출항하고 1주를 쉬는 일정으로 운영된다. 물론 출항 기간이라도 파도가 높으면 대천항에 배를 정박시키고 선내에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이선영(35) 일등항해사는 “출항 때는 맑았던 하늘이 바다로 나가면 눈구름으로 뒤덮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병원선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 운항을 중단합니다. 하지만 대천항에서 가까운 섬은 파도가 좀 높아도 갑니다. 그럴 때면 병원선 내 집기들이 쓰러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모두 줄로 꽂꽂 묶어둬야 합니다.”

한편 공중보건원들은 병원선 근무를 1년 마치면 예외 없이 진출

을 신청한다. 병원선을 타면 200만 원 정도의 월급에다 매달 30만 원의 출장수당이 추가되지만 멀미 등 선박 생활의 고충을 상쇄하진 못한다. 최 사무장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 동안 두 해 이상 병원선을 탄 공중보건원은 한 명도 없었다. 멀미를 전혀 느끼지 않는 의사들도 모두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찾아 떠났다. 평생 한 섬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해마다 새로운 주치의들을 만나야 한다는 얘기도.



생화학분석기, 혈액분석기 등을 갖춘 임상병리실.

INTERVIEW



백윤기 선장은 충남도청 보건행정과 소속 해양수산사무관이다. 마도로스로 태평양을 누비다 1987년 충남501호(당시 132t급)에 합류했다. 총 18명(선박 부문 9명, 의료 부문 8명, 주방장 1명)이 근무하는 충남501호의 운항과 선박 관리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3주 동안에 28개 도서를 한 번은 꼭 들러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부분 융통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운항 스케줄이 미리 나오지만 해상 상태에 따라 급하게 일정이 바뀌기도 합니다.”

백 선장은 충남501호가 순회하는 바닷길을 손금 보듯 파악하고 있다. 25년의 병원선 근무는 그를 충남권역 서해의 달인으로 만들었다. 충남501호가 그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매년 연간 목표인 180일 운항을 달성하는 데 그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최근 운항 실적을 보면 2011년 184일(항해거리 9천500km), 2012년 11월까지 165일(항해거리 8천258km)을 기록했다.

“악천후 만날 때가 가장 힘들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심하면 파도 높이가 4m에 달합니다. 같은 2m 파도라 해도 봄, 여름과는 또 다릅니다. 바람과 조류를 잘 보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바람이 세도 그걸 막아주는 섬이 있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백선노장 선장은 정년을 몇 달밖에 남겨놓지 않았다. 사반세기 안전 운항 기록 달성의 보람과

함께 아련한 추억이 포개지는 시점이다.

“젊었을 때부터 뵈었던 분들이 어느 날 병원선에 안 오시면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세월이 참 빠르고 무감하다는 걸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안전교육 잘 이수하고 굿은 날씨에 철저히 대비한 직원들에게 고마움이 큼니다.”

백 선장은 2013년 여름 충남501호를 이어받을 후배들을 위한 조언과 당부도 잊지 않았다.

“섬 주민들의 질병 치료와 예방이 목적인 병원선 운항은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00% 공익사업입니다.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실력과 더불어 의협심도 필수입니다. 누군가 물에 빠지면 서로 먼저 들어가서 구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Y



백윤기 선장은 “안전 운항을 일궈낸 후배들이 고맙다”고 말했다. 이선영 항해사가 충남501호 조타실에서 눈 내리는 바다를 응시하고 있다.